

# 야권 대통합론 힘 받나

### 민주당 486·재야·친노그룹 '진보개혁모임' 추진

### 참여당에 진보세력까지 포함한 단일정당론 주목

4·27 재보선이 끝나면서 야권의 재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의 중심 축이 소(小)통합론에서 대(大)통합론으로, 정치권 외곽과 진보진영에서 민주당 내 개혁 블록으로 각각 옮겨가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민주당이 불리함을 극복하고 분당율과 강원도에서 승리한 반면, 국민참여당이 친노(親盧)의 성지인 경남 김해읍에서 패배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내 486(4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과 재야파, 친노그룹으로 구성된 '진보개혁모임'은 1일 대전 스파이아 호텔에서 첫 워크숍을 갖고 대통합론 공론화를 시도했다. 워크숍에는 김근태 상임고문, 문희상 의원

등 7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대통합론은 민주당과 참여당은 물론 진보정당까지 포괄하는 단일정당을 만들자는 개념으로 정치권 외곽에서 영화배우 문성근씨 등이 '백만송이 민란운동'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이다. 다른 정당과의 후보 단일화는 그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입어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없다는 데에 주장의 근거를 두고 있다. 문씨 등은 민주당이 야권 단일 정당을 만드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해읍에서 후보단일화를 중재했던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단일화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치권에서 통합 논의를 위한 테이블이 마련되면 시민사회처럼 저

를 진행하는 것도 이런 차이다.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노리는 참여당도

연석회의의 참여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야권연대 논의와 관련, "올해 12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어 그 두달 전부터는 당권 경쟁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9월 이전까지 야권통합의 윤곽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 연대·연합 특위 위원장인 그는 이날 MBC 및 YTN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 "이제 본격적으로 통합을 논의할 시점이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야권연대가 후보단일화 수준에 그치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느낌"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통합 논의를 넘어 진보정당 전체와 '민주진보대통합당'을 만드는 데까지 논의를 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야권 단일정당론을 역설했다.

또 아직은 참여당과 진보정당 내에서 대통합론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이들 정당은 진보진영간 소(小)통합, 민주당과의 연대를 우선하고 있다. 민주당과 야권연대 진보신당 등이 진보진영만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만들어 '진보통합당'을 만들기 위한 논의

를 진행하는 것도 이런 차이다.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노리는 참여당도 연석회의의 참여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야권연대 논의와 관련, "올해 12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어 그 두달 전부터는 당권 경쟁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9월 이전까지 야권통합의 윤곽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 연대·연합 특위 위원장인 그는 이날 MBC 및 YTN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 "이제 본격적으로 통합을 논의할 시점이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야권연대가 후보단일화 수준에 그치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느낌"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통합 논의를 넘어 진보정당 전체와 '민주진보대통합당'을 만드는 데까지 논의를 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야권 단일정당론을 역설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근혜 '유럽구상' 뭘까

### 재보선 패배 후 여권내 역할론 부상... 정가 시선 집중



이명박 대통령 특사로 네덜란드를 순방 중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30일 헤이그 숙소 호텔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농업협력 워크숍에서 수행 의원들과 함께 네덜란드의 선진농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4·27 재보선 패배 후 한나라당 내에서 '박근혜 역할론'이 나오면서 대통령 특사로 유럽을 방문 중인 박근혜 전 대표의 생각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유럽 순방 중 국내의 정치 현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향후 자신의 역할과 관련해 모종의 구상을 가다듬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고민의 근간은 박 전 대표가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정치무대의 전면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복귀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는 것으로 당내 사정과 연동돼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선 친박(친박근혜)계에서는 지난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때의 패배를 거울삼아 선제적으로 움직이지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총선을 박 전 대표 체제로 치를 것이라면 더 이상 머무지 말고 이번에 자연스럽게 등장해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다.

그러나 시간표를 앞당겼을 때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대선까지 1년8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 국민에게 식상감을

주거나 야당의 집중공세 속에서 '흠집'이 난다면 마이너스가 아닐 수 없다. 친이(친이명박)계 주류가 반발한다면 계파대립 회오리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네덜란드에서 베아트릭스 여왕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한다고 총의를 모으면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국내 얘기는 나중에 국내에 가서 할 때가 있을 것"이라며

서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보지도 못했다"라고 즉답을 피해갔다. 박 전 대표는 또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저녁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쿠라후스호텔에서 열린 재외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네덜란드라는 어느 지역·도시를 가든 균형있는 발전을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역 균형발전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27 재보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손학규(가운데) 대표와 한나라당 김태호(왼쪽),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대통령靑인적색신 복안 "출마조 나가고 순장조 남아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개편과 관련, 내년 총선에 출마할 '출마조'와 끝까지 남을 '순장조'로 분류, 대대적인 인적색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임태희 대통령 실장 및 수석비서관들과 티타임을 갖고 "총선 출마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5월 중에 (신변을) 정리하라"면서 "일을 하려면 집중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중순으로 관측되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 때 인기 마지막까지 자신과 운명을 같이할 참모들만 남기는 방식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최근 청와대 참모진을 대상으로 총선 출마 예상자들을 조사한 만큼 출마조, 순장조 분류 작업은 상당 부분 진척돼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청와대 참모는 임태희 비서관을 비롯, 정진석 정무수석, 김희정 대변인, 이성권 시민사회비서관, 박병환 국민소통비서관, 김연광 정부1비서관 등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정가 라운지

### 조영택 의원, 핵심당직자 워크숍 개최

민주당 광주 서구 갑위원회(위원장 조영택)는 지난달 30일 핵심당직자 90여명과 함께 전남 보성에서 워크숍을 갖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발승을 결의했다.



문제 해결내용, 향후 의정활동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의정보고서를 직접 배포하고,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을 계획이다.

이이 11일부터는 도산동을 시작으로 그동안의 의정활동 내용 및 성과를 지역민들에게 보고하는 '동별 순회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지역구 지방의원들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합동 의정보고회' 형식으로 개최된다.

### 곽정숙 의원, 노숙인 지원 법안 마련

민주노동당 곽정숙(비례·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급여를 강제로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고 1일 밝혔다.



또 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해 노숙인 복지사업을 일원화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곽 의원은 이밖에 이번 국회 회기 중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조항을 삭제한 '수상레저안전법'을 통과시켰고, '한국약물 안전관리원' 설립을 골자로 의약품의 안전성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 김동철 의원, 오늘부터 의정보고회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2일부터 23일까지 지역구 상가방문과 함께 동별 순회 의정활동 보고회를 갖는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우선 2일부터 7일까지 지역 내 상가 밀집지역을 돌며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성과, 지역예산 확보 및 현안

## "민생 살리는 올바른 정치 하겠다"

### 손학규·김선동·김태호 국회의원 선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고식을 가졌다.

손 대표(상남 분당을)는 나머지 2명의 의원을 대표해 의원 취임선서를 읽어내린 뒤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를 빌려 저를 선택한 분당 유권자와 국민에게 깊이 감사 드린다"고 발언을 열었다.

2002년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

직을 사퇴한 뒤 9년 만에 국회에 복귀, 4선이 된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받은 국민의 명령은 이대로는 안 된다, 바뀌어야 한다는 '변화'이자, 날로 어려워져가는 민생을 살리는 길, 특권과 반칙이 아닌 정의의 길, 분열·갈등이 아닌 통합의 길, 대결과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로 나아가라"고 말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김태호 의원(경남 김해읍)은 "제 진심을 받아준 김

해시민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바다 민심은 정권교체도, 심판도 아니었으며, 먹고 사는 문제, 애 키우는 문제, 취업 문제 등이 더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 속에 살아있는 정치만이 미래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호남에서 최초의 민노당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김선동 의원(순천)은 "대한민국이 이대로 안 된다는 절절한 현실이 모아져 많은 지지를 받은 것 같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농업인 구합니다!

도시근교 농장에 숙식을 하며 농사일을 할 분을 찾습니다!

- 모집인원 0명
- 근무일수 주 1회 휴무(평일)
- 근무조건
- 숙식가능자, 농사일 유경험자 우대
- 경운기 작동 가능자
- 근무장소 전남 화순군 영남리
- 급여 면접 후 결정
- 접수방법 팩스접수 / 방문접수
-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 접수기간 채용시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본 1통
- 연락처 062)651-8871
- 010-3763-7335
- FAX 062)652-8866

서광타워(주)

## 법인중소기업 회생 안내!

- 1. 법인회생이란?**  
장래 기업가치는 있으나 과도한 부채 또는 보충채무로 인해 현재 경영상황 악화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힘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을 소생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 2. 신청대상 요건은?**
  - ① 현재의 지속적인 수익은 있으나 과도한 부채로 인한 이자비용등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
  - ② 재정적 문제로 인하여 사업장에 압류,가압류,공저당 경매절차등 강제집행의 위험이 있는 기업
  - ③ 만기 도래의 어음에 예정되어 해당 어음으로부터 어려움에 처한 기업으로 신용채무 5억원 이상, 담보채무 10억원 이상 법인 중소기업체 개인사업자 또는 전문직 종사(의사, 한의사, 약사), 공무원 등
- 3.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 ① 원칙적으로 경영권 및 대표이사 지위가 유지됩니다.
  - ② 회사의 채권자들이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한 및 금지되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내용 -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중지 - 압류,가압류,가처분에 따른 강제집행 중지 - 국제,지방세,4대보험료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 중지 및 회생계획안으로 상환
  - ③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를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 유예, 감면 등이 가능합니다
  - ④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하여 직원들과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⑤ 주요 상거래채권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할 수 있어서, 연쇄도산을 막고 계속 사업을 위한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 ⑥ 법원의 보전처분 결정 이후에는 교환에 회부된 담보채무는 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매가 진행중인 기업체도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채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김길수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전화상담은 물론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 철저한 신분보장과 비밀을 약속 드립니다.

변호사 김길수법률사무소 062-226-2785  
기업회생팀 010-5879-8300

古家 고향의 맛

# 고가약소리탕

## 약탕기 홍삼삼계탕

### 약탕기 홍삼삼계탕

4월 1일 개시  
1인분 13,000원

홍삼은? 한의학적으로 가장 오랜 약용 역사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수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주차장 및 계모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석 원비

**점/심/특/선**

오리탕 5,000원  
11:30~1시 까지

**약소리탕**

1마리 36,000원  
반마리 18,000원  
1인분 9,000원

**고가약소리탕**  
약탕기홍삼삼계탕

예약문의  
062)226-8254